



유통업계
몽골 시장 진출
신성장동력 찾는다

L1

흑백요리사

출연 세프와 협업 등
식품·외식업계 활기

L2



소상공인 성장 돋고, 친환경 배달 확산 “행복을 배달해요”



우아한형제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문 앞으로 배달되는 일상의 행복’이라는 서비스 비전을 바탕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요식업 입주와 배달 라이더, 고객으로 대변되는 핵심 관계자는 물론 지역사회와 환경에 이르기까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주체와 성장하고 상생하기 위함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3월 ‘지속가능을 위한 배민다운 약속(Commitment)’을 발표했다. 배민다운 약속은 지속가능한 성장과 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한 2030년까지 2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 투자를 이행하겠다는 우아한형제들의 장기적인 ESG 경영 실천 계획이다. ▲요식업 입주의 성장과 안전망 구축을 위한 노력 ▲배달 라이더 사고 위험 감소와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한 인프라 구축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을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 50% 감축 및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 등을 목표로 한다.

외식업 업주 성장 돋는 ‘배민 아카데미’ 교육·컨설팅, 정서케어 등 맞춤케어 안전교육 등 건강한 배달환경 조성도

◆요식업 사장님과 함께 성장합니다

우아한형제들은 지난달 26일 경기 수원시 배민아카데미 경기센터에서 ‘사장님과 함께 성장한 시간’을 주제로 ‘배민아카데미 10주년의 밤’ 행사를 열었다. 10주년의 밤 행사에는 배민아카데미를 수강한 외식업 업주들과 정부기관 및 협단체 관계자, 강사 및 파트너사, 사내 임직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아한형제들은 2014년 외식업 업주들과 함께 성장하기 위해 ‘배민 아카데미’를 개소했다. 배민아카데미는 업주들의 창업과 성장을 돋고자 장사에 필요한 기본 지식과 경영 이론, 실습교육, 컨설팅까지 여러 프로그램을 모두 무료로 제공했다. 온라인 교육은 물론 서울 송파구 서울센터와 경기 수원시 경기센터에서 외식업 오프라인 교육도 운영 중이다. 첫 교육 시작 당시 21명의 수강생을 시작으로 한 배민아카데미는 10년 동안 26만7000명이 넘는 업주들이 참여해 3400회 이상의 교육횟수를 기록한 대규모 무료 교육으로 거듭났다.

우아한형제들은 배민 아카데미를 필두로 ▲사장님 맞춤형 교육·컨설팅 ▲외식업 정보 지원 확대 ▲판로 확대·안전망 구축 ▲사장님 정서 케어 등까지 지원하고 있다. 외식업 트렌드와 장사소식, 소상공인 지원, 리뷰 관리 등 업주들이 필요한 정보



에 전반에 관한 교육을 무상 제공하고 있다. 배민라이더스쿨의 누적교육자 수는 2021년 2237명, 2022년 7739명, 2023년 1만 335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무사고 무위반 서약 캠페인 참여자 또한 지난해 12월까지 5594명에 이르렀으며 지역 내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동네구조대 교육을 참가한 라이더 수도 2617명을 기록했다.



배민라이더스쿨

건립기념식



■ 우아한형제들은 지난해 전문 포토그래퍼가 요식업 입주와 메뉴 사진 등을 촬영하는 서비스를 진행했다. 한 요식업 입주가 ‘배민사진관’을 통해 촬영한 음식 사진을 벽에 걸고 있다.
 ■ 지난 3월 4세대 이륜차 안전교육 시설 ‘하남 배민라이더스쿨’ 건립기념식에서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배달의민족에 도입한 다회용기 가방의 모습. 우아한형제들은 점진적인 다회용기 이용 확산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목표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를 전달하는 ‘배민 외식업광장’은 2023년 한 해 동안 66만여 명이 이용하기도 했다.

권용규우아한형제들사장님비즈니스성장센터 센터장은 “치열한 외식업 시장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해 가게를 일구어 가고 있는 외식업 사장님들께 존경과 응원의 마음을 보낸다”며 “앞으로도 힘이 되고 도움이 되는 교육을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배달 라이더의 안전과 건강도 함께

우아한형제들은 업주와 고객을 이어주지만 동시에 위험에도 늘 노출된 배달 라이더와 관련된 상생 경영도 이어가고 있다.

안전 배달 환경을 조성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며 사고 예방 및 후속대처를 마련해 배달 라이더들의 건강한 배달 활동을 돋고자 한다.

가장 대표적인 활동은 ‘배민라이더스쿨’이다. 라이더스쿨은 이륜차 안전운행 교육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교육 기관이다. 2021년 5월 배달업계 유일의 오프라인 교육기관으로 문을 열었고 20년 이상 이륜차 강의 경력을 갖춘 전문 강사진과 함께 실제로로 환경의 신호체계를 반영한 주행 연습장에서 안전한 이륜차 운행과 배달서비스

2032년까지 온실가스 50% 감축 목표
다회용기 사용, 일회용품 안받기 도입
재활용 용이한 포장재 소재·방식 적용

◆기후 위기 늦추는 친환경 배달문화

우아한형제들은 2032년까지 자체 발생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2년 대비 50% 감축하며 친환경 배달문화 선도라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기 위해 우아한형제들은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 ▲친환경 배달수단 전환 ▲지속가능패키징 확대 ▲정부·지자체·파트너와 인프라 개선 기여 ▲고객·사장·라이더와 함께 하는 친환경 배달문화 정착 등으로 세분화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웠다.

성과를 거둔 활동에는 배달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앱 내 친환경 옵션 기능 도입이 있다. 2019년 4월 우아한형제들은 배달업계 최초로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배달의민족 앱에 도입한 후 ‘기본 친 안 받기’, ‘다회용기 배달’ 등을 속속 도입했다. 간단한 기능이지만 일회용 수저포크 안 받기 기능을 도입한 후 2019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63억 개의 일회용 수저포크가 배달되지 않았고 이를 통해 2만 5645톤(t)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었다.

또 지속 가능한 패키징 사용 활성화를 위해 다회용기 배달 서비스를 서울시, 경기, 인천 등으로 확대한 데 이어 배민B마트와 배민문방구에서 사용되는 포장재 역시 재활용이 용이하고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소재 및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라이더 대상 전기 이륜차 대여를 지원하는 등 친환경 배달 문화 확산을 노력하고 있다.

김중현 우아한형제들 가치경영실 실장은 “우아한형제들은 앞으로도 배달의민족과 함께 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와 함께 오늘 보다 더 나은 배달문화, 지속 가능한 배달 산업을 만들어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2024 가을야구, 역대 PS 입장 수입 최고액
 ▲여자프로농구 개막… 6개 구단 감독 출사표

/사진 뉴시스

▲이경훈, PGA 투어 슈라이너스 오픈 공동 5위
 ▲‘국제대회 복귀’ 안세영, 덴마크오픈 우승 무산



▲피겨 김채연, ISU 챌린지 시리즈 우승…‘204.67점’
 /사진 뉴시스
 ▲젠키-T1, ‘롤드컵’ 4강서 맞대결…결승 ‘한중대전’ 성사